

#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좋은 간호는 좋은 인간에서~

<연세의대 간호학과 부교수> 전 산 초

요즘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여가는 것을 본다. 사람이 약고 빈틈없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촌보의 양보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손해보는 일이라곤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일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차차 자라나서 남이야 어찌 되었던 자기의 이득이나 권세 또는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간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런 코앞에 닥친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가나 인류사회 또는 자손만대의 장래를 위한 복지나 원대한 포부를 위한 공익이란 안중에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현실이다.

이에 밝하여 졸업을 앞둔 여러분

나이팅젤의 후예들은 본시 태어나기를 그 바탕부터가 남을 섬기고 도우고 돌보아 주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여 그 어려운 일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이 아닌가? 또 지금까지 그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길을 배워왔고 이제는 이렇게 물에 젖어 언젠가 환자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해와 양보와 포용력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성격이 모르면 사이에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자와는 애초에 바탕부터가 달리 출발하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며 거기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 장차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관계에서 더한층 나아가 사업적으로, 학문적으로 동지요 친구의 유대를 더욱 굳게 맺어야 하는 마당에서 나는 진실로 여러분이 잘 살아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이 간호학을 전공했으

기 좋은 간호원이 되라고 해야 마땅하겠지만 우리는 좋은 간호원이 되기 전에 좋은 인간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일은 절대로 누구나가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간호원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에 귀한 것이고 생각하는 여성이기에 더욱 아름답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자기의 하는 일에 있어서 뚜렷한 주관이 있어 모든 일에 자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자기 생활에 철학이 있어야겠고 자기의 주의(主義)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삶의 향상이 있고 희열이 있고 의의를 느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더욱더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을 가져야 한다.

사회란 실력대결의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의 실력을 꾸준히 쌓으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또 자기 직업에 자부심이 생기고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좋은 인격의 형성이란 자기가 노력하여 좋은 것을 해보려고 하고 이것을 되풀이할 때에 결국 내 것이 되어 제2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나 행동하기 전에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그릇된 일인지 판단하여 모든 일에 옳은 길을 따라 행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좋은 개성으로 변해 가리라고 생각된다.

또 우리는 관용의 인간이 되자.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와판제된 모든 인간관계에서 원만하며 남을 기쁘게 하고 또한 남에게 어떤 일을 기대하기 전에 나의 할 일을 먼저 하는 여유있는 너그러운 아량을 가진 인격을 기르자. 이것이 이렇게 메마른 인심과 무언가 극박한 세대에 있어 절실히 요구되는 인간형이 아닐까 생각된다.

멋이 깃드린 인생을 향유하자.

우리는 우리의 주된 일에 충실하며 동시에 자기 개인이 삶을 즐길 수 있는 풍치를 지녀야 하며 삶의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자기가 하는 일이나 인격 형성에 원만하고 충실한 생을 가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즐겁고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꼭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의 양상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것이 눈에 띄기도 하고 은은한 가운데 풍기기도 하며 남의 눈에 잘 띄지 않으나 멋으로 조용히 나타나기도

한다.

예술을 좋아하는 생, 사람과 사귀면서 즐기는 생, 남을 도우는 일에 동참하며 기쁨을 느끼는 생, 물건을 모으는 재미를 가진 생, 사색과 독서로 자기의 생을 충실하게 채워보려는 의욕적인 생,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곳에서 우리는 진귀한 삶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에 뚜렷한 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발견하자.

그리하여 우리는 나이를 차차 먹게 마련이나 기쁨과 소망 그리고 진보하는 의욕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의 지금 지닌 청초함과 아름다움을 일생토록 지니도록 지금 출발하는 시점부터 기백을 가지고 출발해 보자.

우리가 쌓은 좋은 인격과 좋은 직업에다가 금상천화격으로 약간 결물인 텃에서 발산하는 인생은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는 직업인으로써 좋은 간호원이 되어야겠다. “the profession”이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교양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각각 헤어져가는 길이 다

를지 모른다. 그러나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아 모든 것은 돌아가며 판련을 가지게 마련이다.

좋은 간호원이면 그가 종사하는 일에 따라 좋은 아내, 좋은 선생 등등으로 결국은 좋은 인간에 귀결을 짓게 된다.

우리는 타성과 추종의 흐름에서 같이 무의미하게 흘러내려갈 수 밖에 없는 세태에서 깨우쳐 적은 일에서부터 뜻을 가지고 창조하는 간호와 우리의 학문에서 새것을 발견하는 지식을 가지고 수없이 흐르는 흐린 물을 거슬러 올라가 맑은 샘의 세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사는 좋은 간호원이 되어 보자.

그리하여 졸업한지 1년 후가 한달 전보다 낮고 10년후가 1년 되었을때 보다 발전되어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의 경지를 높이는데 「플러스」가 되는 생활이 되고 그 보람이 나와 남에게 공동의 덕과 유익을 주며 가질 수 있는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두서 없으나 젊은 새세대의 창조자들을 위해 간절하고 무언가 주어 도움이 되는 초점이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더욱 글 쓰는 재간의 부족함을 느끼며 아쉬운 붓을 놓는다.

이귀향 } 공저  
이영복 }

## 간호윤리·직업적조정

극판·양장

수문사 발행

값 600원